

[종합·국제]

6자회담 3개 실무회의 15~17일 열릴 듯

- 15일-경제·에너지
- 16일-평화·안보체제
- 17일-한반도 비핵화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에너지 협력 분야 등 6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3개 분야 실무그룹 회의를 오는 15~17일 베이징에서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경제·에너지 실무

그룹 회의를 15일에, 러시아가 의장국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를 16일에 각각 개최하는 방안이 참가국들 사이에 회담되고 있다. 또 중국은 자국이 의장국을 맡기로 한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를 오는 17일 개최하는 방안을 참가국들에 회담했다. 이와 관련,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9일 관영 신화통신 웹사이트를 통해 가진 온라인 채팅에서 “오는 17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를 갖자고 각국

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19일 개최하는 차기 6자회담 직전에 열기로 했다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언급에 비춰 18일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현재 실무그룹 회의 일정에 대해 참가국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각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초에 최종 회의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전남 개발 프랑스에서 배운다

⑥ 잠자는 관광 寶庫, 국가가 눈을 떠야

개발 성공, 정부 의지·지원에 달렸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그랑모뜨와 까마르그 항구의 개발과정은 전남 서남해안을 국제적인 해양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전남도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가 이들 지역을 해양 리조트로 만들기 위해 개발계획 자체를 비밀로 해가며 토지매입을 성사시켰던 사례는, 전남도의 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프랑스 남동부 해안에 있는 유럽 제일의 휴양지 니스의 해변가 풍경. 프랑스는 지중해에 인접해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심분 활용, 요트를 비롯한 해양 레포츠 단지화 고급 휴양지가 결합된 세계적인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현지 개발담당 공무원들은 ‘황무지에 불과했던 그랑모뜨와 까마르그가 국제적인 요트항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발계획을 직접 주도하고, 또 30여 년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의 명예와 운명을 걸고 추진한 ‘랑독·루시옹 해안 개발사업’에 착수하면서 지난 1963년 대통령령으로 ‘해양관광개발본부’를 구성해 개발사업을 전담토록 했으며, ‘지역개발 도시계획법’을 제정해 개발의 근거를 마련했다.

전담부서에 전권 위임

정부는 또 개발전담부서인 ‘해양관광개발본부’에 전권을 위임,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고 동시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개발사업에 성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또 초기엔 개발사업이 ‘미선임과서불(불가능한 임무)’로 불릴 만큼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30여 년간 지원을 계속했으며, 특히 권력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을 제정하는 등 제도

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칫 개발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환경법’을 비교적 신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개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이밖에 정부의 개발계획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지역민들을 설득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개발계획을 환영하고 적극 수용한 지역민들의 우호적인 자세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민 사이에 신뢰와 협력관계가 구축된 것도 개발사업이 성공으로 이끈 요인이 됐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서는 프랑스식 해안 개발이 국내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 아무리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중앙정부가 특정지역을 집중개발하는 것은 부담이 따르는데다, 대규모 개발계획을 숨긴다거나 환경법의 적용을 완화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국민소득이 요트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높다는 점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어 해안 관리가 쉽고, 한국 서남해안과 달리 물이 탁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전남의 모든 섬과 해안선 개발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구태 벗어 던지고 새 비전 찾아라”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가장 길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지니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연수는 섬과 해안선개발을 바라보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찾아낼 수 있는 첫 발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에는 니스와 칸느 등에서 볼 수 있는 유럽형 고급빌라를 지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목포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목포 내항과 남항을 요트를 중심으로 한 관광·레저전문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요트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日 아베, 궁지에 빠지다

군대 위안부 발언 국내·외 파문 확산 당분간 정면대응 자제...시간벌기 나설 듯

대응을 자제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미 하원에 제출된 군대위안부 결의안에 대해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 데 이어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일본 정부로서 사죄할 의향이 절대 없다고 단정하게 맞섰다.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던 1993년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해서도 ‘공의 강제성’은 인정되지만 ‘협의를 강제성’의 증거가 없다며 수정 필요성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즉각적인 거센 반발에다 국회에서 야당들의 추궁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유력지와 인사 등이 아베의 왜곡된 역

사인식을 잇따라 공격하고 나섬에 따라 아베 총리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LA타임즈, 보스턴 글로브 등 유력지에 이어 유럽 주간지인 타임도 아베 총리의 위안부 발언 비판에 가세했다. 타임은 일본 정부가 6자회담 북·일 실무회의에서 북한을 상대로 자국인 납치문제는 중시하면서 위안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또 지난 9일에는 토머스 슈퍼 주일미 대사가 일본의 일부 지도자가 군대위안부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고노 담화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파벌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군대위안부에 관한 발언이 검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안락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북핵 6자회담에서는 10여명에 불과한 자국인 납치문제에 강경 대응하면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국제적인 비난까지 겹치면서 입장이 더욱 난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위안부에 대한 정면 대응이 파문만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연해주 동북해안에 고구려·발해 성곽 집중”

러 학자, 석성 10여곳 확인

러시아 연해주 지역 동북해안을 따라 고구려나 발해 문화 영향이 깊은 성곽이 집중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과학원 역사고고민족학연구소 여성고고학자인 O.V. 디야코바(58) 박사가 고고학 전문 계

간자인 ‘한국의 고고학’(주류성) 2007년 봄호(통권 3호)에 기고한 ‘연해주 중세시대 성지에 보이는 고구려의 전통’이라는 글에서 나타났다.

디야코바 박사는 이 글에서 발해 이후 요·금 시대를 지나 동하국(東夏國·1217~1234) 시기에 이르는 연해주 지역 중세시대 성곽이 현재까지 40여 곳 보고됐다 면

서 “이들 산성은 크게 언덕 위에 자리한 돌로 만든 발해나 말갈 축조 요새와 산비탈에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여진·동하국 시대 성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발해·말갈 축조 석성은 10여 곳 알려졌다. 그 중 세례브란강의 웨트비르크보 클류치 등 6개소는 디야코바 박사가 직접 조사·발굴을 담당했다. /연합뉴스

“목포 내항·남항, 요트항으로 키울 것”

■정 중 득 목포시장 인터뷰

이번에 섬·해안개발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 현지 시찰을 다녀온 정중득 목포시장은 ‘목포를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는 비전과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북항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내항과 남항을 요트항으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 시찰결과 성과가 있는지, ▲요트산업이아말로 목포의 미래 경제를 이끌 어갈 최적의 산업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체계적인 개발과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중해 연안 못지 않은 해양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중해 연안과 전남 서해안을 비교한다면,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갯벌이 많아 물이 탁

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해안이 절벽으로 이뤄진 유럽과는 달리 섬이 많고 해안선이 야기하기에 볼 것이 많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목포를 요트 관광단지로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은, ▲당장은 올해 70억 원을 들여 북항에 30~50척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현지시찰 도중 까마르그에서 만난 요트항 전문가를 조만간 초빙,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두 500억 원을 들여 산정농공단지~북항~유달산~삼학도~남항~평화광장~도청을 잇는 길이 30km의 해안관광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도로에는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경관조명시설이 설치된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유달산 일

(주)한국에텍 '07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 선정 740kw 확정

신재생에너지 정부 무상 보급보조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온수·난방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발전량 1000kWh(100%) ▶연간발전비용 100만원 ▶연간발전이익 100만원 ▶회수기간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발전량 1000kWh(100%) ▶연간발전비용 100만원 ▶연간발전이익 100만원 ▶회수기간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발전량 1000kWh(100%) ▶연간발전비용 100만원 ▶연간발전이익 100만원 ▶회수기간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발전량 1000kWh(100%) ▶연간발전비용 100만원 ▶연간발전이익 100만원 ▶회수기간 1년

<p>내 집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자!</p>	<p>태양광·태양열시스템 무상 보급보조사업</p>	<p>원수 및 상담문의</p>
<p>☎ 02-2600-1111</p>	<p>☎ 02-2600-1111</p>	<p>☎ 02-2600-1111</p>